

나가사키시의 대표 축제, 쿤치의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 태 윤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2009년도 총회가 지난해 10월 나가사키시에서 개최되었다. 마침, 일본의 3대 축제의 하나인 나가사키 쿤치가 개최되는 시기였다. 총회에 참석한 일행은 (주)나가사키경제연구소의 안내로 쿤치 축제를 관람하는 행운을 가졌는데, 그 축제를 보고나서 느낀 시사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나가사키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가사키시는 일본의 서부, 큐슈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가사키현의 행정, 경제, 관광, 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시의 면적은 241.28km²이고, 인구는 대략 45만 여명이며, 연간 관광객은 2006년 기준 약 570만명이다. 시의 대표적인 산업은 조선업, 수산업, 관광업이다.

나가사키시는 1571년에 개항하였고, 일본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가장 많이 풍기고 있으며, 특별히 유럽풍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이다. 개항 이전에는 조그마한 어촌으로 경작지도 매우 적어 산비탈에 농사를 짓던 벽촌에 불과하였던 곳이다.

개항 이후 매년 포르투갈 무역선이 입항하면서 남방무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개항은 외국인의 일본 진출뿐만 아니라, 역으로 일본의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일본은 1616년에 크리스티교에 대해 대대적으로 탄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당나라 선적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무역항을

나가사키항과 히라도항 등 2개항으로 제한하였다. 1636년에는 나가사키시에 살고 있던 포르투갈인들을 데지마(出島)라는 인공섬에 살게 하였고, 1641년부터 쇄국이 시작되었다.

나가사키시는 일본의 쇄국 이후 1859년까지 200여 년 동안 일본 유일의 무역항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근대 문화가 개화하는데 기초를 마련했던 곳이다. 그 중에도 관영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조선소는 일본 제일의 조선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조선업이 나가사키시의 기간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 투하로 7만 여명의 시민이 희생되었으며,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원폭 피해도시라는 특수성으로부터 핵무기 폐기 등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평화추진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 본론으로 나가사키시의 쿤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가사키 쿤치(くんち) 축제는 나가사키의 씨족신(氏神, 수호신) 스와신사¹⁾에 대한 가을 축제로 매년 10월 7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이때에는 나가사키시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의 기원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톨릭 포교에 대항하기 위해 1634년에 마루야 마마치와 요리아이마치 등 두 명의 유녀(遊女)가

1) 스와신사란 씨족신이나 호국신을 모셔놓은 사찰 또는 어느 신산에서 모시는 신의 일부를 모셔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와신사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었는데, 이를 나가사키의 영주가 지원하고 장려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에 나가사키에서는 나가사키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을 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인공섬인 데지마(出島) 매립이 착공되었고, 현재 나가사키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소개되는 안경모양의 다리인 메가네바시(眼鏡橋)가 세워졌다.

이후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축제는 출신 국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가사키시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마을단위에서 공연되는 춤은 이국적 정취가 많아졌고 과거 에도시대보다 호화스럽고 현란한 축제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고 한다.

나가사키시에는 49개의 마을(町)이 있는데, 이러한 마을단위의 공연을 오도리쵸(通り町)라고 하는데, 오도리쵸 공연작품의 연습은 매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공연은 축제기간 3일 동안에 7개 마을에서 준비한 오도리쵸를 공연한다. 따라서 나가사키 쿤치를 전부 관람하려면 7년이 필요하다.

쿤치(くんち)의 어원은 음력 9월 9일을 중양(重陽)의 길한 날로, 중국에서는 최고의 명절로 손꼽히는데, 중국의 풍습에서 전래된 것으로 9일을 일본어로 구니치라고 읽는데, 이를 쿤치로 읽으며 제례일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쿤치 축제가 개최되는 진행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쿤치에 참석하는 오도리쵸 공연단이 공연장으로 이동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② 마을의 원로와 함께 마을의 유래를 안고 있는 씨족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들고 공연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③ 마을 전통의 음악을 공연하기 위한 연주단이 공연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연하는 동안 연주를 책임지는데, 악기는 모두 전통악기만을 사용한다.



④ 마을의 어린이들(대략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 또래)이 엄마와 함께 입장하여 행사진행 본부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⑦ 마을의 청년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공연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⑤ 공연장 본부석에 인사를 하고 마을에서 준비한 선물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이 때 일본식 손수건을 관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그 손수건을 받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한다. 일본식 손수건은 목에 감거나 머리띠로도 사용된다.



⑧ 마을청년들이 자기 마을의 명예를 걸고 공연에 열중하고 있다.



⑥ 마을의 씨족신, 마을의 유래 등을 의미하는 공연을 한다. 주로 마을의 장년층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나가사키 쿤치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나가사키시 49개 초(町)가 모두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 개 마을이 공연하는 시간이 대략 3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된다. 매년 7개 마을씩 순번제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축제기간중 전체 공연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 이상 소요된다. 각기 자기마을의 유래, 전통 등을 공유함으로써 마을 주민간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마을과 경쟁하며 매년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49개 마을의 전체 공연 내용을 보려면 7년을 기

다려야 한다.

- ② 최소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 마을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원로에서부터 유치원에 입학할 아동, 그리고 장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참여해야 공연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통이 이어지고, 노년, 청장년, 부인, 아동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성원이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만끽할 수 있는 세대의 벽을 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 ③ 마을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쿤치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래와 춤이 대표적인 공연 내용이다. 노래를 하는 경우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를 부인들이 부르고, 연주는 전통악기로 연주되고 있다. 따라서 쿤치가 계속되는 한 민요와 전통악기 연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필요시, 지역의 발전상과 연계된 새로운 창작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1600년대 시작되었던 축제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축제의 역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쿤치 축제가 존재하는 한 전통적인 민요와 춤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④ 축제는 마을간 경연으로 진행되지만 나가사키시를 하나로 묶는 효과가 있다.

축제를 관람하는 동안 다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7개 마을의 공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진행순서와 시간 배정이 앞서 얘기했던 축제 진행순서와 동일하다.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공연과 차이가 있는 부분만을 보고 싶어하는 시간적 촉박감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곰곰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 49개 마을이 서로 결합하는 축제를 펼치지만, 나가사키 시민은 모두 하나임을 강조하는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사키 대표 축제인 쿤치를 관람하고 나서 느낀 점은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즐기는 축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축제에 참가한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은 마을을, 마을은 나가사키시를 그리고 나가사키시는 시민과 마을을 서로 잇는 시민축제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